

#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도상 연구

## 광배와 대좌에 보이는 중기밀교 요소를 중심으로

徐志敏\*

- I. 머리말
- II.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도상 성립
- III.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전개와 특징
- IV.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에 보이는 중기밀교 요소
- V.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 신앙의 불교사적 배경
- VI. 맺음말

### I. 머리말

비로자나불상은 통일신라 8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9세기 중반 이후에 유행하는 불상형식이다.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은 대개 智拳印을 결한 如來形으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는 華嚴宗과 禪宗의 주존불로 봉안되었던 예가 있다. 하지만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지권인은 원래 중기밀교의 금강계 대일여래의 수인으로, 8-9세기의 인도와 중국, 일본에서는 머리에 冠을 쓰고 장신구를 걸친 보살형의 금강계 대일여래상이 주로 조성되었다. 이와 같이

---

\* 충북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은 지권인을 곁하고 있지만 여래형이며 화엄종과 선종의 주존불로 봉안되었다는 점에서 중기밀교의 금강계 대일여래상과는 도상과 신앙 면에서 차이가 있다.

통일신라 불교조각사에서 비로자나불상의 이러한 특수성이 주목되면서 先學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초기에는 개별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智異山 內院寺에 봉안되어 있는 石南寺 비로자나불상 대좌에 永泰2年(766)銘의 舍利壺가 봉안되었음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 중에서도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始原作이자 동아시아 불교문화권 내에서도 가장 이른 紀年作인 석남사 비로자나불상과 비교되는 인도나 중국의 여래형 금강계 대일여래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여래형의 비로자나불상은 통일신라 화엄종에서 창안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up>1</sup> 또한 이와는 상반되는 주장으로 중국의 華嚴 4代祖인 澄觀(738-839)이 화엄종과 중기밀교를 융합하는 사상체계를 갖고 있었으므로 징관의 화엄사상이 통일신라로 전래되면서 여래형의 비로자나불상도 함께 수용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어, 여래형 비로자나불상의 기원문제는 통일신라 불교조각사의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sup>2</sup> 이후에는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도상의 기원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기왕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도나 중국의 여래형 금강계 대일여래상이 소개되면서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증되기도 하였다.<sup>3</sup> 한편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조성의 배경이 되는 불교사상도 주된 논의대상이 되어, 화엄종과 선종에서 주존불로 봉안된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신앙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신라시대 중기밀교의 유입과정이나 중기밀교와 화엄종, 선종 간의 사상적인 융합에 대한 견해도 제시되었다.<sup>4</sup>

이상의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 연구에서 대체로 일치되는 바는, 통일신라 비로자

1 姜友邦, 「韓國 毘盧遮那佛像의 成立과 展開」, 『美術資料』 44(國立中央博物館, 1989)(同著, 『圓融과 調和』[열화당, 1990]에 재수록).

2 文明大, 「智拳印 毘盧遮那佛의 成立問題와 石南巖寺 毘盧遮那佛像의 研究」, 『佛教美術』 11(東國大學校博物館, 1992)(同著, 『統一新羅 佛教彫刻史 研究(上)-圓音과 古典美』[예경, 2003]에 재수록).

3 朴亨國, 「七獅子蓮華坐의 成立と傳播-韓國統一新羅後期の石造毘盧遮那佛坐像を中心に」, 『密教圖像』 14號(密教圖像學會, 1995); 同著, 「韓國統一新羅時代後期の石造毘盧遮那佛坐像について-洛東江中・上流地域慶尙北道地方を中心に」, 『美術史』 139(1996)(이상의 글들은 『ヴァイローチャナ佛の圖像學的研究』[京都: 法藏館, 2000]에 재수록); 金理那·李淑姬, 「統一新羅時代 智拳印 毘盧舍那佛像 研究의 爭點과 問題」, 『美術史論壇』 7(한국미술연구소, 1998).

4 文明大, 「毘盧遮那佛의 造形과 그 佛身觀의 研究」, 『李基白先生古稀記念韓國史學論叢』 上(一潮閣, 1994), pp.480-501(同著, 『統一新羅 佛教彫刻史 研究(上)-圓音과 古典美』[예경, 2003], pp.169-183에 재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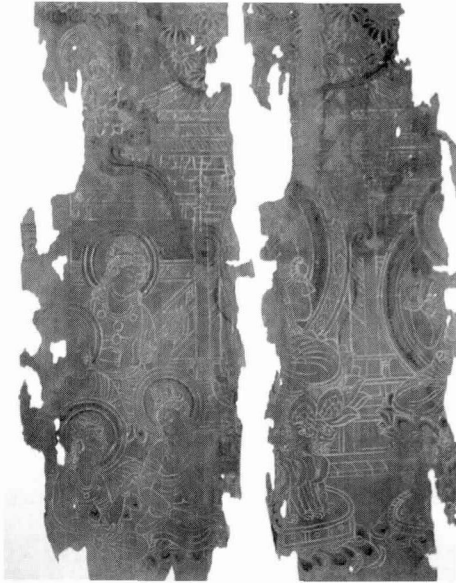
나불상은 금강계 대일여래의 수인인 지권인을 채용하였다는 점과, 『八十華嚴經』에 근거하는 화엄신앙에 의해서 여래형 비로자나불상이 처음으로 출현하며, 이후에 화엄종과 선종 사찰의 주존불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도상의 기원문제와 신앙성격에 대해서는 선학들이 다양한 논지로 여러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에 관한 기왕의 연구에서는 주로 지권인의 수인과 如來形과 菩薩形, 寶冠如來形으로 구분되는 佛身의 형태를 주목하면서 도상특징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sup>5</sup> 그러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에는 불신 이외에도 대좌와 광배에 이전 시기의 불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도상이 표현된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대좌와 광배에 化佛과 佛·菩薩像이 장엄요소로 표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는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보편적인 특징으로만 이해할 뿐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광배와 대좌에 표현된 도상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비로자나불상 중에서 대좌와 광배를 갖춘 예가 드물고, 대좌와 광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도상을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광배와 대좌에 배열된 化佛과 佛·菩薩 도상을 파악할 수 있는 桐華寺 毘盧菴 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해서 浮石寺 慈忍堂에 봉안된 傳 東方寺址 출토의 비로자나불상 2구, 洪川 物傑里寺址 비로자나불상 등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중기밀교계 존상의 광배나 대좌에 표현되는 도상과 비교되는 요소가 간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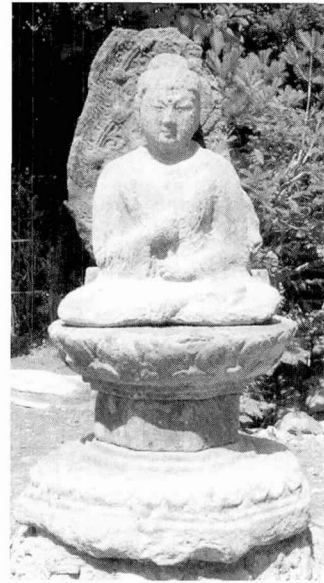
따라서 불신의 특징과 더불어 대좌와 광배에 표현된 도상특징을 도출하여 중기밀교의 도상과 비교한다면,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도상에 관한 이해를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佛身을 중심으로 광배와 대좌에 배열되는 佛·菩薩像의 도상은 어떤 상징성을 추구하는 데서 생긴 것으로 여겨지므로,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기왕의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도상과 양식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그 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대좌와 광배에 배열된 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인도와 중국의 중기밀교계 존상들과 비교·고찰하여,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도상에 내포된 상징적인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 또한 비로자나불상의 성립과 전

<sup>5</sup> 李淑姬,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 『美術史學研究』 250·251(韓國美術史學會, 2006, 9).



도 1 <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 745년 완성,  
삼성미술관 리움



도 2 石南寺 비로자나불상, 766년,  
佛身高 108cm, 臺座高 103cm,  
경남 산청군 삼장면  
內院寺 봉안

개과정을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사적인 배경 속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 II.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도상 성립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이 표현된 가장 이른 시기의 예인 <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755)>는 『八十華嚴經』의 寫經本 표지이며<sup>도1</sup>, 조성연대가 명확한 가장 이른 시기의 불상인 石南寺 비로자나불상(766)의 조상기에는 『八十華嚴經』에서 法身佛을 지칭하는 音寫인 毘盧遮那라는 尊名이 기록되어 있다<sup>도2</sup>. 이러한 예를 통해서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은 『八十華嚴經』의 法身佛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八十華嚴經』에는 비로자나불의 모습에 대해서 “불타께서는 법으로써 몸을 삼아서 청청하기가 허공과 같고, 나타내는 바 모든 형상을 이 법 가운데 들게 한다”라든가 “법신은 허공과 같아서 걸림도 없고 차별도 없으며, 빛깔과 형상은 그림자처럼 온갖 모양을 나

타낸다”라는 등의 추상적 내용만이 있을 뿐 수인이나 형상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sup>6</sup>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이 결하고 있는 지권인은 『佛說境界攝眞實經』 등의 중기밀교 경전에서 금강계 대일여래의 수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sup>7</sup>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은 중기밀교와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80화엄 신앙에 의거하여 조성된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이 금강계 대일여래의 도상을 채용하게 되었던 배경으로는 중기밀교를 포용하는 교학체계를 갖추었던 중국의 華嚴4代祖 澄觀(738-839)의 佛身觀이 통일신라로 전래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8</sup> 그러나 징관이 『華嚴經疏』와 이를 復注한 『華嚴經隨疏演義鈔』에서 문수보살의 상주처인 五臺山을 중기밀교의 五方佛 개념을 도입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가 不空(705-774)의 밀교경전 역경에 참여하는 大曆3年(768) 이후에 가능한 일이다.<sup>9</sup> 하지만 <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와 석남사상은 澄觀이 화엄과 중기밀교를 융합하는 교학체계를 완성하기 이전인 8세기 중반에 조성된 예이므로, 징관의 불신관이 통일신라로 전래되기 이전에 통일신라 화엄종에는 이미 중기밀교의 도상이 수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8세기 초반의 唐代 화엄종에서 중기밀교의 도상을 수용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세기 초반의 唐代 불교계는 화엄종 등의 다양한 종파가 서로 교리적인 연계를 시도하면서 각자의 사상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695년에 測天武后(624?-705)의 초빙으로 西域僧 實叉難陀(652-710)가 『八十華嚴經』의 漢譯을 주도하고 華嚴3代祖 法藏(643-712)도 譯經에 참여하였는데, 이 때 80화엄의 법신불에 대한 교학적인 개념과 체계가 정립되었다. 이후 화엄종은 황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80화엄의 교리를 더욱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파의 교학과 신앙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는데,<sup>10</sup> 관념적인 80화엄의 법신불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도상 개념을 開元4年(716)과 開元7年(719)에 金剛智와 善無畏에 의해 전래된 中期密敎에서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sup>11</sup>

<sup>6</sup> 『大正新修大藏經』 第10卷, 華嚴部, pp.31-32.

<sup>7</sup> 『大正新修大藏經』 第18卷, 密敎部 p.275.

<sup>8</sup> 文明大, 「毘盧遮那佛의 造形과 그 佛身觀의 研究」, pp.492-493.

<sup>9</sup> 朴魯俊, 「唐代 五臺山信仰과 澄觀」, 『關東史學』 3(關東大史學會, 1988), pp.109-117. 『華嚴經疏』와 『華嚴經隨疏演義鈔』의 저작 시기에 관해서는 慧南(盧在性), 「澄觀의 五臺山 入山과 華嚴經疏鈔의 著作」, 『中央僧伽大學論文集』 7(中央僧伽大學校, 1998), pp.48-60.

<sup>10</sup> 戒環, 『中國華嚴思想史研究』(佛光出版部, 1996), pp.127-142; 木村清孝 著, 정병삼 외 옮김, 『中國華嚴思想史』(民族社 2005), pp.134-137; Stanley Weinstein 著, 任大熙 譯, 「唐代 佛敎 宗派 형성에 있어서 皇室의 後援」, 『宗敎와 文化』 1(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5), pp.230-239.



도 3 돈황 安西 榆林窟 제25굴 主室 東壁 불화, 776-781년

도 4 태장계 대일여래상, 9세기, 인도 오리샤새 라트나기리 第5祠堂 출토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8세기 중반의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나 석남사 상보다 앞서 80화엄의 법신불로 조성된 唐代 여래형의 비로자나불상의 예나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중기밀교가 80화엄의 법신불 도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법장이 밀교적인 神異를 행하였으며 神功元年(697)에는 十一面도량을 개설하고 관음상을 모시고 기원하여 거란을 물리쳤다는 『法藏和尚傳』의 기록이 있다.<sup>12</sup> 이 기록에 전하는 법장의 신이는 비록 雜密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중기밀교와는 차이가 있지만, 당시 화엄종에서 밀교적인 도상과 신앙을 수용하기도 하였음을 말해주므로 8세기 초반에 새롭게 전래된 중기밀교 도상과 신앙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8세기 후반 티벳지역의 예이지만, 大曆11年(776)에서 建中2年(781)사이에 조영된 敦煌 安西 榆林窟 第25窟 主室 東壁의 벽화에는 80화엄의 법신불을 중기밀교 도상에서 채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유람굴 제 25굴 동벽에는 定印의 주존을 중심으로 그 좌우로 각 4구씩 보살상이 배열되어 있는데 도 3 이는 인도 중기밀교의 태장계 대일여래상 광배 좌우에 八大菩薩을 배열하는 도상과 같다 도 4.

<sup>11</sup> 중기밀교의 중국 전래과정에서 밀교승들의 활동과 경전의 漢譯, 사찰의 창건 등의 전법활동에 대해서는 松長有慶 著, 朴畢圭 譯, 『密敎의 相承者—행동과 사상』(佛光出版部, 1993), pp.105-167; 呂建福, 『中國密敎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p.201-245.

<sup>12</sup> 『大正新修大藏經』 제50권, 史傳部, p.283.

주존불 하단에는 “淸靜法身 盧舍那佛”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법신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존불은 80화엄의 비로자나불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이상의 『法藏和尚傳』의 기록과 안서 유림굴 제25굴의 벽화를 통해서 80화엄의 법신불 도상을 중기밀교에서 채용하였을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도상과 신앙, 양면에서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직접적인 원류가 되는 예를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통일신라에서 8세기 중반부터 80화엄 신앙에 의거하여 지권인을 결한 여래형의 비로자나불상 도상이 독자적으로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八十華嚴經』이 통일신라로 전래된 시점은 8세기 초반으로 파악된다. 『八十華嚴經』의 전래 시기는 의상의 제자인 悟眞이 唐의 了源和尚에게 『八十華嚴經』의 品數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는 均如의 기록과,<sup>14</sup> 8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활동했던 表員이 『八十華嚴經』을 주내용으로 하는 『華嚴經文義要決問答』을 저술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695년에 唐에서 한역된 『八十華嚴經』이 통일신라로 바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반면 『三國遺事』 卷3의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에는 唐 代宗(762-779)에게 파견된 景德王(742-764)의 使臣이 중기밀교의 경전과 신앙의식을 접하였다는 내용이 있어서,<sup>16</sup> 8세기 중반에는 중기밀교와 그 도상에 대한 이해도 간접적이거나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9세기 무렵에는 중기밀교가 통일신라로 직접 유입되므로 그 도상에 대한 이해도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며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9세기 무렵에 중기밀교의 도상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음을 말해주는 자료로 『三國遺事』 卷3의 「五萬眞身」條 중에서 “오대산 中臺 眞如院 後壁에는 비로자나불을 首位로 36化形을 그려 봉안하라”는 내용이 있다.<sup>17</sup> 진여원 후벽의 비로자나불 주위에 그려진 36화형은 중기밀교의 金剛界

<sup>13</sup> 『中國石窟 安西榆林窟』(東京: 平凡社, 1991), p.172; 田中公明, 『敦煌 密教と美術』(京都: 法藏館, 2000), p.23.

<sup>14</sup> “이 下本經의 所有品數料簡은 智通問答 剛目中에는 38品, 花嚴傳 孔目章에는 48品, 花嚴宗要에는 36品으로 되어 있다. 이 땅에 傳한 80卷 本經도 이 下本 4萬5千偈를 번역한 것인데 39品으로 되어 있다. 무슨 연고로 本經은 38品인데 번역해서 39品이 되었는가 하니 답하기를, 新羅의 悟眞和尚이 唐의 了源和尚에서 이 사실을 물으니 了源화상이 이르기를…” 均如說, 『釋華嚴旨歸章圓通譚』 卷上, 『韓國佛教全書』 4(東國大學校出版部, 1991), p.120上.

<sup>15</sup> 金仁德, 「表員의 華嚴學」, 『韓國華嚴思想研究』(東國大學校出版部, 1982), pp.108-110; 黃圭燦, 『新羅 表員의 華嚴學』(民族社, 1998), p.17.

<sup>16</sup> “四月八日 詔兩街於內道場禮萬佛山命三藏不空念讚密部眞詮千遍以慶之… (4월 8일에 [代宗은] 두 거리의 중들에게 명하여 내도량에서 만불산에 예를 드리게 하고, 삼장불공에게 명하여 밀부의 진전을 1천번이나 외어서 경축하게 하니…)” 『三國遺事』 卷3,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

<sup>17</sup> “黃處中臺眞如院中安泥像文殊不動後壁安黃地畫毗盧遮那爲首三十六化形(黃色房인 中臺의 眞如院에는 가운데는 泥像 文殊菩薩 不動像을 모시고 뒷벽에는 누런 바탕에 그린 毘盧遮那佛을 首位로 한 三十六化形을 모시고)”

五佛과 四波羅蜜菩薩, 十六大菩薩, 八供養菩薩, 四攝菩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중기밀교의 금강계 대일여래 도상을 80화엄의 비로자나불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五萬眞身」條의 내용을 一然是 新龍元年(705)의 일로 기록하고 있지만, 오대산에 오방불이 상주한다는 인식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澄觀의 佛身觀이 전래될 때 가능한 것이다. 징관의 불신관은 그의 『華嚴經疏』가 통일신라로 전래되는 昭聖元年(799)경에 전래되었을 것이므로,<sup>18</sup> 「五萬眞身」條의 내용은 9세기경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唐僧 順曉가 805년에 저술한 『順曉阿闍梨付法記』에는 많은 入唐新羅僧이 중기밀교를 수학하였고, 그중 義林은 통일신라로 귀국하여 전법활동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9</sup> 또한 『法藏和尚傳』에도 崔致遠(857-?)이 咸通15年(874)에 懿宗이 행한 法門寺 진신사리 공양을 목격하였다고 밝히고 있어서 唐代 중기밀교의 다양한 도상이 표현된 〈鑾金四十五尊造像蓋頂銀函〉(871) 등의 사리구를 최치원이 實見하였을 가능성도 있다.<sup>20</sup>

이상의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8세기 중반경에 중기밀교가 통일신라로 전래되기 시작하였고, 9세기 무렵에는 入唐승려와 불교도들의 왕래를 통해서 중기밀교가 보다 직접적으로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1</sup> 이러한 중기밀교 도상에 대한 이해는 관념적인 『八十華嚴經』의 법신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하여 비로자나불상 도상이 성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金福順, 「新羅 下代 華嚴의 一例—五臺山事蹟을 中心으로」, 『史叢』 33(高大史學會, 1988. 6), pp.9-19; 金杜珍, 「新羅 下代の 五臺山信仰과 華嚴結社」, 『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 上(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2), pp.689-693.

<sup>18</sup> 『三國遺事』 卷4의 「勝詮擱讖」條에는 “범수라는 스님이 멀리 저 나라에 가서 新譯後分華嚴經과 觀師의 疏를 구하여 왔으니 이때가 貞元 己卯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新譯後分華嚴經은 『四十華嚴經』을 의미하고 觀師의 疏는 징관이 787년 저술한 『華嚴經疏』 20권과 후분화엄경의 해석서인 『貞元經』 10권으로 추정된다. 金福順, 『新羅華嚴宗研究』(民族社, 1990), p.27.

<sup>19</sup> 高翊晉, 「新羅密敎의 思想內容과 展開樣相」, 『韓國密敎思想研究』(동국대학교출판부, 1986), pp.199-209; 宗釋, 「唐朝의 純密盛行과 入唐 新羅密敎僧들의 思想—純密思想의 新羅傳來와 그것의 韓國的 展開」, 『論文集』 5(中央僧伽大學校, 1996), pp.71-82; 徐閔吉, 「新羅 義林禪師와 그의 密敎思想」, 『佛敎學報』 29(東國大 新羅文化研究院, 1992), pp.116-120.

<sup>20</sup> “崔致遠曰愚於咸通十五年甲午春在西京干時懿宗皇帝命使 迎奉眞身來自鳳翔目觀瑞應(최치원은 말하기를 [法藏의 法門寺 사리공양 의식에서 나타난 7가지 瑞應을 말한 후에] 내가 咸通15年(874) 甲午 봄에 西京에 있었는데, 이때 懿宗 황제께서 사신을 시켜 진신을 받들어 오게 되어 鳳翔府로부터 목격한 서웅이 거의 이와 비슷한 것이었다. 『法藏和尚傳』) 『大正新修大藏經』 제50권, 史傳部, pp.283-284.

<sup>21</sup> 會昌年間(841-846)에 일어난 唐 武宗의 폐불정책도 중기밀교를 수학한 승려들이 통일신라로 귀국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權惠永, 「唐 武宗의 廢佛과 新羅 求法僧의 動向」, 『精神文化研究』 17권 1호, 통권54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pp.93-106.

### III.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전개와 특징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은 약 50여 구가 현존하는데, 그중에는 佛身에 명문이 있거나 조상기가 기록된 舍利壺와 동반되어 조성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예가 많은 편이므로 통일신라 불상연구의 주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대표적인 상들의 양식적인 특징을 통한 編年이나 수인, 착의법을 기준으로 계보를 구성하는 고찰도 이루어진 바 있다.<sup>22</sup>

이 장에서는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도상과 양식의 전개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불신의 특징과 더불어 대좌의 형식과 새로운 도상표현에 주목하면서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변화양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아울러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조성과 관련되는 불교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조성의 경위와 후원세력, 그리고 신앙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명문과 조상기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표1).

#### 1. 8세기 중반—9세기 초반

8세기 중반에서 9세기 초반에 속하는 비로자나불상으로는 조성연대가 명확한 〈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와 石南寺 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하여 양식적인 특징을 통해 이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佛國寺 비로자나불상, 靑巖寺 修道庵 비로자나불상, 寒天寺 비로자나불상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유행한 불상양식의 토대 위에서 지권인의 수인만이 새롭게 채용되어 비로자나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하지만 광배와 대좌의 표현에서는 비로자나불상 특유의 도상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도상의 유입단계로 볼 수 있다.

비로자나불상 도상의 유입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주목되는 예는 755년에 완성된 『八十華嚴經』 사경본의 표지인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이다(도1). 이 변상도의 주존불로 그려진 비로자나불상은 팔뚝에 腕釧을 차고 어깨 위로 보발이 흘러내려와 있어서 보살형 혹은 보관여래형으로 파악되고 있다.<sup>23</sup> 대좌의 중대에는 4頭의 사자만이 남아 있지만 원래는 칠사자연화

<sup>22</sup> 지면관계상 열거하지 못한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에 관한 연구사와 참고문헌은 金理那·李淑姬, 앞의 논문, pp.229-241, 그리고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도판은 『新羅의 獅子』(國立慶州博物館, 2006)에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표 1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목록 및 현상

시기	명칭	연대	재질	구성	불신		광배		대좌		소재지	
					머리	대의	정상부 화불	용기선 화불	중대석	하대석		
8세기 중반 — 9세기 초반	대방광불 화엄경변상도	754-755	회화	독존	보살형	?	없음		칠사자		호암미술관	
	석남사 비로자나불상	766	석조	독존	여래형	통견	거신주형광배/ 꽃무늬장식		팔각연화좌		석남사 관음암/ 산청군 내원사	
	불국사 비로자나불상	8세기 후반	금동	독존	여래형	편단 우견	亡失		亡失		경주시 진현동	
	청암사 수도암 비로자나불상	9세기 전반	석조	독존	보관 여래형	통견	亡失		팔각연화좌/ 안상		김천시 증산면	
9세기 중반 — 9세기 후반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상	보림사 비로자나불상	859년	철조	독존	여래형	통견	亡失		亡失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	865년	철조	독존	여래형	통견	亡失		팔각연화대좌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관우리
	동화사 비로암 상유형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상	863년경	석조	독존	여래형	통견	삼존	4구 대칭	칠사자	향로/ 보살상	대구시 도학동
		비로사 비로자나불상	9세기 중반	석조	독존	여래형	통견	확인 불가	4구 확인	칠사자	확인 불가	영주시 풍기읍
		법수사지 비로자나불상	9세기 중반	석조	삼존	亡失	통견	확인 불가	2구 확인	칠사자	亡失	성주군 수륜면/ 경북대박물관
		불국사 비로자나불상	9세기 중반	석조	삼존	亡失		亡失		칠사자	亡失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 경내
		축서사 비로자나불상	867년경	석조	독존	여래형	통견	삼존	확인 불가	공양 보살상	칠사자/ 향로	봉화군 물야면
		불곡사 비로자나불상	9세기 중반	석조	독존	여래형	통견		2구 확인	공양 보살상	칠사자/ 삼화문	창원시 대방동
		서혈사 비로자나불상	9세기 중반	석조	독존	여래형	통견	亡失		확인 불가	사자문/ 향로	원소재지 불명
		傳 동방사지 비로자나불상2구	9세기 중반	석조	삼신 (?)	여래형	통견	삼존	4구/ 삼신	공양 보살상	칠사자/ 향로	영풍시 부석면/ 부석사 자인당
	축서사 상유형	서림사지 비로자나불상	9세기 중반	석조	독존	여래형	통견	亡失		공양 보살상	칠사자/ 삼화문	양양군 서면
		용암사 비로자나불상	9세기 중반	석조	독존	여래형	통견	亡失		공양 보살상	亡失	원소재지 불명/ 청주시 우암동
		홍천 물결리사지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석조	삼신 (?)	여래형	통견	亡失		공양 보살상	칠사자/ 향로	홍천군 내촌면
		동화사 비로암 상유형	각연사 비로자나불상	10세기 초반	석조	독존	여래형	편단 우견	삼존	4구 대칭	칠사자	향로/ 가롱빈가
성주 금봉리 비로자나불상			10세기 초반	석조	독존	여래형	통견	독존	2구 대칭	칠사자	사자문 (8마리)	성주군 가천면
천황사 비로자나불상			10세기 초반	석조	독존	여래형	편단 우견	亡失		사자문 (11마리)	亡失	밀양시 산내면
안동 마애동 비로자나불상	10세기 초반		석조	독존	여래형	통견	亡失		공양 보살상 /향로	칠사자/ 향로	안동시 풍산읍	
축서사 상유형	경북대박물관 비로자나불상	10세기 초반	석조	독존	여래형	통견	독존	3구	보살 입상	사자문 (8마리)	원소재지 불명	
	영천 화남동 비로자나불상	10세기 초반	석조	독존	여래형	통견	亡失		사천왕/ 보살입상	사자문 (8마리)	영천군 화남동 한광사	

와 형식일 것으로 보이는데, 주존불의 도상이나 중대가 칠사자로 표현된 대좌는 『金剛頂經』의 내용에 근거해서 제작된 8세기 唐本으로 추정하는 『五部心觀』의 금강계 대일여래상과 거의 같다.<sup>24</sup> 따라서 통일신라의 80화엄의 주존불 도상은 唐代 중기밀교의 금강계 대일여래 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한편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의 각 축 末尾에는 화엄경의 寫經 과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佛菩薩像을 그린 筆師는 大京(경주)의 義本 韓奈麻와 丁得 奈麻 등이다”라는 부분이 주목된다.<sup>25</sup> 이는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가 제작되기 이전부터 경주지역 華嚴僧은 금강계 대일여래 도상을 80화엄의 비로자나불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므로, 금강계 대일여래를 『八十華嚴經』의 법신불로 인식하는 새로운 80화엄사상이 수도 경주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

불화가 아닌 불상 중에서 8세기 중반에서 9세기 초반의 시기를 대표하는 예로는 石南寺 비로자나불상이 있는데, 석남사상의 조상기에는 永泰2年(766)에 조성되었다는 사실과 80화엄의 법신불을 지칭하는 毘盧遮那佛이라는 尊名이 기록되어 있지만 밀교경전인 無垢淨光陀



도 5 『五部心觀』의 보살형 금강계 대일여래상, 唐代 9세기本, 日本 園城寺

<sup>23</sup> 李淑姬, 앞의 논문, p.53.

<sup>24</sup> 朴亨國, 앞의 책, pp.214-216.

<sup>25</sup> “天寶十三載甲午八月一日初乙未載二月十四日一部周了成內之成內願旨者皇龍寺緣起法師爲 … 經心匠大京能吉奈麻弓古奈 佛菩薩像筆師同京義本韓奈麻丁得奈麻 光得舍知 豆烏舍 經題 筆師同京同智大舍 六頭品 父吉得阿滄… (天寶13年[景德王13年, 754년] 甲午年 8월 1일에 시작하여 乙未年(755) 2월 14일에 1부를 두루 이루었다. 서원의 취지는 皇龍寺의 緣起法師가 한 것으로 … 經心を 만든 장인은 大京의 能吉 奈麻와 弓古 奈麻이다. 佛·菩薩像을 그린 筆師는 같은 大京의 義本 韓奈麻와 丁得 奈麻, □得 舍知, 豆烏 舍知이다. 經의 題目을 쓴 筆師는 같은 大京의 同智 大舍인데 六頭品이고 父는 吉得 阿滄이다…)” 李基白,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 關與者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83(歷史學會, 1979), p.131; 金相鉉, 「華嚴寺의 創建年代와 創建者」, 『華嚴寺·華嚴石經』(華嚴寺, 2002), pp.69-74.

<sup>26</sup> 8세기 중반 중기밀교 도상의 경주 유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는 또 다른 예로는 景德王10년(751)에 착공되는 石窟庵 龕室에 안치된 8구의 보살상이 태장계 8대보살의 일부라는 박형국 선생의 견해가 참고된다. 朴亨國, 「慶州石窟庵의 龕內像群に關する一試論-維摩·文殊と八大菩薩の復原を中心に」, 『佛教藝術』 239(1988), pp.50-72.

羅尼經과 함께 봉안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27</sup> 석남사상은 손은 가슴 위까지 올리지 않고 배 부분까지 내리고 있으며, 왼손 검지의 한 마디만을 잡은 시원적인 형태의 지권인을 결하고 있어서 새로운 도상을 완숙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광배는 擧身舟形의 형식으로 두 줄의 용기선으로 頭光과 身光을 구획하고 그 위에 꽃 모양의 장식이 표현되었으며, 팔각연화좌 형식의 대좌에는 중기밀교와 연관되는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의 주존불 대좌에 나타났던 칠사자의 표현은 없다도<sup>28</sup>. 석남사상의 광배와 대좌는 오히려 거의 같은 시기의 축지인상 예인 경주 南山에서 출토된 菩提寺 여래좌상이나 경주박물관 소장 여래좌상과 유사하다.<sup>28</sup> 이러한 점을 볼 때 초기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에서는 지권인의 수인만을 금강계 대일여래 도상에서 채용되었을 뿐 광배와 대좌의 형식이나 문양의 표현은 이전의 불상전통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9세기 중반-9세기 후반

9세기 중반에서 9세기 후반에 속하는 비로자나불상으로는 조성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寶林寺 비로자나불상(858년), 桐華寺 毘盧庵 비로자나불상(863년 추정), 到彼岸寺 비로자나불상(865년), 鷲棲寺 비로자나불상(867년 추정)을 비롯하여 양식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이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毘盧寺 비로자나불상, 法水寺 비로자나삼존불상, 佛國寺 비로자나삼존불상, 佛谷寺 비로자나불상, 西穴寺 비로자나불상, 浮石寺 慈忍堂에 전하는 傳東方寺址 비로자나불상 2구, 西林寺址 비로자나불상 등의 많은 예가 있다. 특히 9세기 중반의 비로자나불상에서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광배와 대좌에 새로운 도상이 표현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도상은 9세기 중반 이후에도 전승되고 있어서 9세기 중반은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비로자나불상 도상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9세기 중반에서 9세기 후반의 비로자나불상은 대좌의 형식을 기준으로 크게 桐華寺 毘盧庵 비로자나불상 유형과 鷲棲寺 비로자나불상 유형으로 구분된다. 동화사 비로암상은 원형에 가까운 중대석 전면에 구름문이 있고 그 사이로는 7사자가 상체를 내밀고 있는 새로운

<sup>27</sup>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 釋法勝法緣二僧并 內奉過去爲飛賜豆溫哀郎願爲石毘盧遮那佛 成內無垢淨光陀羅尼并 (永泰2年 丙午 7월 2일에 法勝과 法緣 두 스님이 함께 뜻을 받들어 돌아가신 豆溫哀郎이 발원한 石毘盧遮那佛을 조성하여 無垢淨光陀羅尼經과 함께 石南巖寺 觀音巖에 넣어 두었다)” 南豐鉉,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의 史讀文 考察」, 『新羅文化』 5(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8), pp.5-25.

<sup>28</sup> 『慶州南山一圖版篇』(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0), pp.108, 112-113의 도판 참조.



도 6 桐華寺 毘盧庵 비로자나  
불상, 863년경,  
佛身高 129cm,  
臺座高 89cm,  
대구시 도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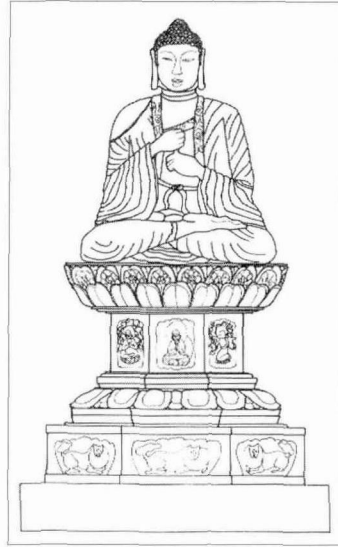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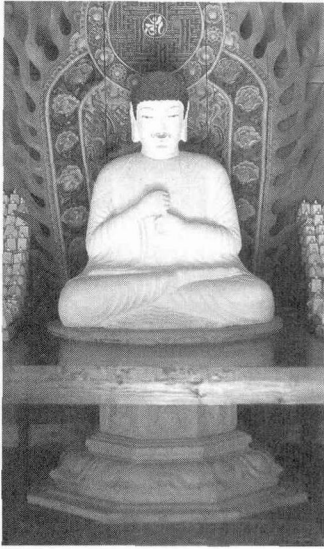


도 6-1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상 실측도  
(文明大, 『統一新羅 佛教彫刻史 研究(上)』, p.216, 323에서 전재)



대좌형식이다. 9세기 중반에는 文殊菩薩과 普賢菩薩을 협시로 하는 비로자나삼존불상도 조성되었는데, 佛國寺와 法水寺 비로자나삼존불상의 본존불 대좌 중대석도 동화사 비로암상과 같은 형식이며 도7, 毘盧寺 비로자나불상의 대좌 중대석도 동화사 비로암상과 같은 형식 이므로 9세기 중반에는 동화사 비로암상의 대좌 형식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화사 비로암상의 대좌형식과 도상의 표현은 8세기 중반의 석남사상이나 같은 시기의 축지 인상에서는 볼 수 없는 9세기 중반 비로자나불상 고유의 특징이다도6.

반면에 축서사상의 대좌는 통일신라에서 전통적으로 유행한 팔각연화좌 형식이지만, 중대석에는 合掌印像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지물을 든 佛·菩薩像이 안상 속에 배열되어 이전 시기의 불상과는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도7. 또한 대좌형식으로는 축서사상 유형에 속하지만, 용암사와 서림사지상의 중대석에는 향로를 중심으로 佛·菩薩像이 배열되는 차이를 보이므로 축서사상 유형의 비로자나불상 대좌 중대석의 도상은 다시 두 가지 계통으로 세분화된다도8. 이러한 두 가지 계통의 다른 도상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는 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9세기 중반의 비로자나불상 대좌에 배열되는 佛·菩薩像은 어떠한 도상 규범에 근거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도 7 鷲棲寺 비로자나불상,  
佛身高 108cm,  
臺座高 96cm,  
경북 봉화군 물야면  
도 7-1 축서사 비로자나불상  
실측도  
(文明大, 『統一新羅 佛  
教彫刻史 研究(上)』,  
p.219에서 전재)



도 8 西林寺址 비로자나불상의 대좌 중대석  
세부, 臺座高 115cm,  
강원 양양군 서면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한편 동화사 비로암상과 축서사상은 경주의 외곽지역에 조성된 예이지만, 조상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주의 중앙양식과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화사 비로암상은 비로암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호의 조상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咸通4年(863)에 민애대왕의 願堂을 건립할 때 석탑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상기의 내용 중에는 “왕실의 원당을 조성하는 데 翰林沙干 伊觀, 專智大德 心智를 비롯하여 匠人들이 참여하였다”라는 부분이 있다.<sup>29)</sup> 이를 통해서 동화사 비로암상은 왕실의 願堂에 봉안된 것이며, 佛事에는 敏哀大王의 外家 조카인 心智가 專知大德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專知大德’에서 전지는 「昌林寺 無垢淨塔記」의 참여자 인명 중에도 “專知修造僧”, “專知修造官”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탑건립의 주 업무를 담당하는 官職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동화사 비로암상도 心智와 함께 동원된 경주의 匠人들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축서사상도 대웅전 앞의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舍利壺에 새겨진 조상기에서 “咸通8年(867)에 경주의 귀족이 無垢淨塔을 건립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때 탑과 함께 불상도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불상양식 역시 경주지역의 불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sup>30</sup>

### 3. 9세기 말—10세기 초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중에서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반에 조성되었음을 말해주는 명문자료가 있는 예는 없지만, 불신의 양감도 줄고 大衣의 옷주름도 이전 시기보다 도식적으로 표현되는 등의 양식적인 특징을 통해서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반경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비로자나불상이 있다. 이러한 예 중에서 覺淵寺 비로자나불상, 星州 金鳳里 비로자나불상은 동화사 비로암상 유형으로도<sup>9</sup>, 洪川 物傑里寺址 비로자나불상, 安東 磨崖洞 비로자나불상, 경북대박물관소장 비로자나불상, 永川 華南洞 비로자나불상은 축서사상 유형으로 분류된다<sup>10</sup>.

하지만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반의 비로자나불상은 불신의 양식적인 퇴보가 뚜렷할 뿐 아니라 대좌에 표현된 佛·菩薩像의 도상 표현도 9세기 중반의 비로자나불상과 같이 규범화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시기의 축지인상과 도상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같은 시

<sup>29</sup> “□國王奉爲 □敏哀大王追崇 □福業造石塔記 (중략) 欲崇蓮胎之業於 桐敷顯堂之前 創立石塔冀 교幼童 子聚沙之義伏願 (중략) □時咸通四年歲 在癸未無射之月 十日記翰林沙干 伊觀 專知大德 心智 同知大德 融行 唯乃舍心德 專知大舍昌具□ 典永忠□匠梵覺 (국왕은 삼가 민에대왕을 위하여 복업을 추승하고자 석탑을 조성하고 쓴다. (중략) 蓮胎之業을 높이고자 하여 동화사 원당 앞에 석탑을 세우고 (중략) 때는 咸通4年 계미년 9월 10일이 있으며, 한림사간 이관이 기록하였고, 전지대덕인 심지, 동지대덕인 응행과 유내승 승범, 유나사 심덕, 전지대사 창구, 전인 영충, 장인 범각이 참여했다.)” 金南允, 「敏哀王石塔 舍利函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卷(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pp.314-315와 358의 각주 25.

<sup>30</sup> “釋彥博 母親諱明端 考伊食金亮 宗公之季女 親自發弘誓 專起塔佛已 感淨土之業 乘利穢國之 生孝順此志 建立茲塔在 佛舍利十粒 作無垢淨一壇 壇師寺皇龍 寺僧賢炬 大唐咸通 八年建 (底面: 石匠神擘) (승려 彥博의 어머니는 이름은 明端으로 부친은 伊食 金亮公으로 그의 막내딸이다. 스스로 커다란 서원을 발하여서 직접 불탑을 세워서 정도에 갈 수 있는 공덕을 세우고 아울러 속세의 생명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였다. [언부는] 이 뜻을 효성스럽게 만들어서 이 탑을 세우고 부처의 사리 10개를 넣고 無垢淨經에 의한 법회를 열었다. 법회의 설법을 맡은 승려는 皇龍寺의 賢炬이다. 唐나라 咸通8年(867)에 세운다. <밑면> 石匠은 神擘이다.)” 崔鉛植, 「驚棲寺 蠟石舍利函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卷(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pp.361-363.



도 9 星州 金鳳里 비로자나불상,  
佛身高 82cm, 臺座高 77cm,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도 10 경북대박물관 비로자나불상,  
佛身高 103cm,  
臺座高 118cm,  
대구시 북구 산격동

기의 예로 보이는 法住寺 水晶庵 여래좌상 등의 축지인불상 대좌에도 중대석에 보살상이 있고 하대석 전면에 사자가 배열되는 등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반의 비로자나불상과 유사한 도상이 표현되기도 한다.<sup>31</sup> 하지만 축지인상 대좌에 배열된 佛·菩薩像의 경우에는 대개 각기 다른 지물을 들고 있지 않고 같은 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立像으로 표현되거나 四天王이나 梵天, 帝釋天 등과 함께 배열되기 때문에,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반경의 비로자나불상 도상과는 부분적으로 혼용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9세기 중반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에서 정립되었던 도상의 개념은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반의 비로자나불상에도 전승되고 있지만, 광배의 화불은 모두 같은 도상으로 표현되며 대좌에는 사자가 팔각의 하대석 전면에 배열되고 보살상도 부분적으로 立像으로 변모하는 등 도상의 규범이 세부적으로 와해되는 특징을 보인다.

31 『新羅의 獅子』(國立慶州博物館, 2006), pp.70-71의 도판 참조.

## IV.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에 보이는 중기밀교 요소

인도와 중국에서는 8세기 초반부터 경전의 규범에 근거하여 다양한 중기밀교의 존상들이 조성되었는데, 그러한 예들 중에는 본존이 갖고 있는 교학적인 의미나 상징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광배와 대좌에 佛·菩薩像을 표현하여 일종의 만다라 같은 구도를 보이는 예가 많다.<sup>32</sup> 이러한 중기밀교 존상의 광배와 대좌에 나타나는 여러 도상 구도는 9세기 중반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도상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세기 중반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과 중기밀교 존상의 도상과의 비교하여,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광배와 대좌에 나타나는 중기밀교 도상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佛身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이 중기밀교의 금강계 대일여래의 도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가장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智拳印을 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선학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견해들을 참고하면 지권인은 8세기 초반경에 漢譯된 『金剛頂經』 계통의 중기밀교 경전에서 금강계 대일여래의 佛身觀을 설명하면서 수인을 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지권인은 理와 智, 중생과 부처, 그리고 미혹함과 깨달음이 모두 하나라는 의미를 지닌 금강계 대일여래의 수인으로, 지권인을 결하면 菩提心이 일어나서 堅實함이 생기고 正覺을 얻게 된다고 한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8세기 초반부터 지권인을 결한 금강계 대일여래상이 조성되었는데, 그러한 예들은 보살형, 보관여래형, 여래형의 다양한 도상을 보인다. 그중에서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과 같은 여래형의 예로는 8세기 초반경의 인도 오릿사쑈 라리타기리 출토의 금강계 대일여래상이 있으며, 唐代의 예로는 雲南省 大理縣의 崇聖寺 千尋塔에서 발견된 9세기 중반의 금강계 대일여래상이 있다.<sup>34</sup> 또한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운남성 대리현에서 발견된

<sup>32</sup> 광배와 대좌에 주존의 변화법신을 배열하고 있는 인도의 대일여래상에 대해서는 宮治昭, 「インドの大日如來像の現存作例について」, 『密教図像』 14, (密教図像學會, 1995), pp.5-20; 同著, 「ハスラ朝の佛教美術—佛・菩薩の圖像を中心に」, 『インド密教』(春秋社, 1999), pp.159-164.

<sup>33</sup> 『大日經·金剛頂經』外 한글대장경133(동국역경원, 1994), pp.450-451; 『大正新修大藏經』 제18권, 密教部 1, p.275. 중기밀교 경전에 설명되고 있는 지권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숙희, 앞의 논문, pp.41-43을 참조.



도 11 여래형 금강계 대일여래상,  
9세기 후반, 중국 雲南省 大理縣  
출토

9세기 후반경의 금강계 대일여래상도 있다.<sup>35</sup> 운남성 대리현의 금강계 대일여래상은 불신이 드러나는 얇은 편단우견을 입고 있어서 인도적인 색채가 짙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래형이지만 완천과 귀걸이를 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살형의 도상특징이 더해져 있으므로, 唐代에는 여래형과 보살형, 보관여래형의 도상 이외에도 여래형과 보살형의 중간단계를 보이는 변형된 도상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11</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와 중국에서 조성된 금강계 대일여래상의 도상이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원류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보다 앞서는 8세기 중반 이전의 唐代 기년작이 없어서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과 직접 연관을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중기밀교 신앙이 인도에서 唐을 거치면서 통일신라로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금강계 대일여래 도상이 8세기 중반 통일신라에서 80화엄 신앙에 의거하는 법신불 도상으로 채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光背

9세기 중반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중에서 완전하게 광배를 갖추고 있는 예는 동화사 비로암상이 유일하지만 축서사, 비로사, 법수사, 불곡사상의 광배 편에도 융기선상에 좌우 대칭으로 화불이 배열되어 있음을 볼 때 모두 동화사 비로암상 광배와 같은 형태일 것으로 판단된다.<sup>36</sup>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광배에 화불이 배열되는 것도 중기밀교계 존상의 광배에 금강계오불을 배열하는 도상과 비교되는데, 9세기경부터 인도의 중기밀교상인 변화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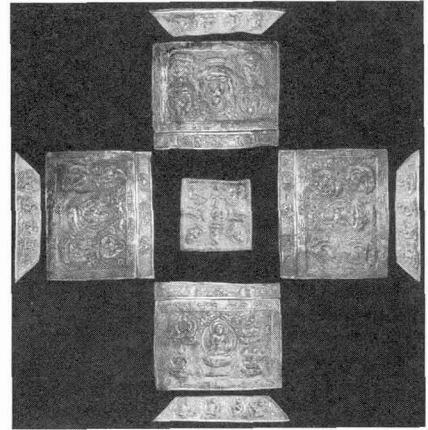
<sup>34</sup> 이숙희, 앞의 논문, pp.43-47 및 도 1과 도 5 참고.

<sup>35</sup> 金甲·賈文忠, 『中國佛像眞偽識別』(遼寧人民出版社, 2004), pp.66-68.

<sup>36</sup> 文明大, 「毘盧寺 石造毘盧·阿彌陀二佛像의 考察」, 『考古美術』 136·137(韓國美術史學會, 1978), p.128의 도판; 金由卿, 「新羅·高麗 毘盧遮那佛像의 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94의 도판 13-4; 李正曉, 「新羅石佛研究」, 『考古歷史學志』 10호(東亞大學校博物館, 1994), p.529의 도판 19-1 참조.



도 12 傳 인도 비하르주 출토 광배편, 10세기,  
캘커타인도박물관



도 13 〈鑿金四十五尊造像錄頂銀函〉, 871년,  
中國 陝西省 扶風縣 法門寺 地宮 出土,  
法門寺博物館

상과 문수보살상 등의 광배에는 금강계오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sup>37</sup> 대표적인 예로 정상부에 日月이 걸린 傘蓋가 있어서 광배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傳 인도 비하르주 출토의 부조상은 기둥으로 구획된 아치형의 龕 속에 좌측에서부터 축지인의 아축여래, 여원인의 보생여래, 지권인의 대일여래, 시무외인의 불공성취여래, 선정인의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금강계오불이 배열되어 있다<sup>도12</sup>.<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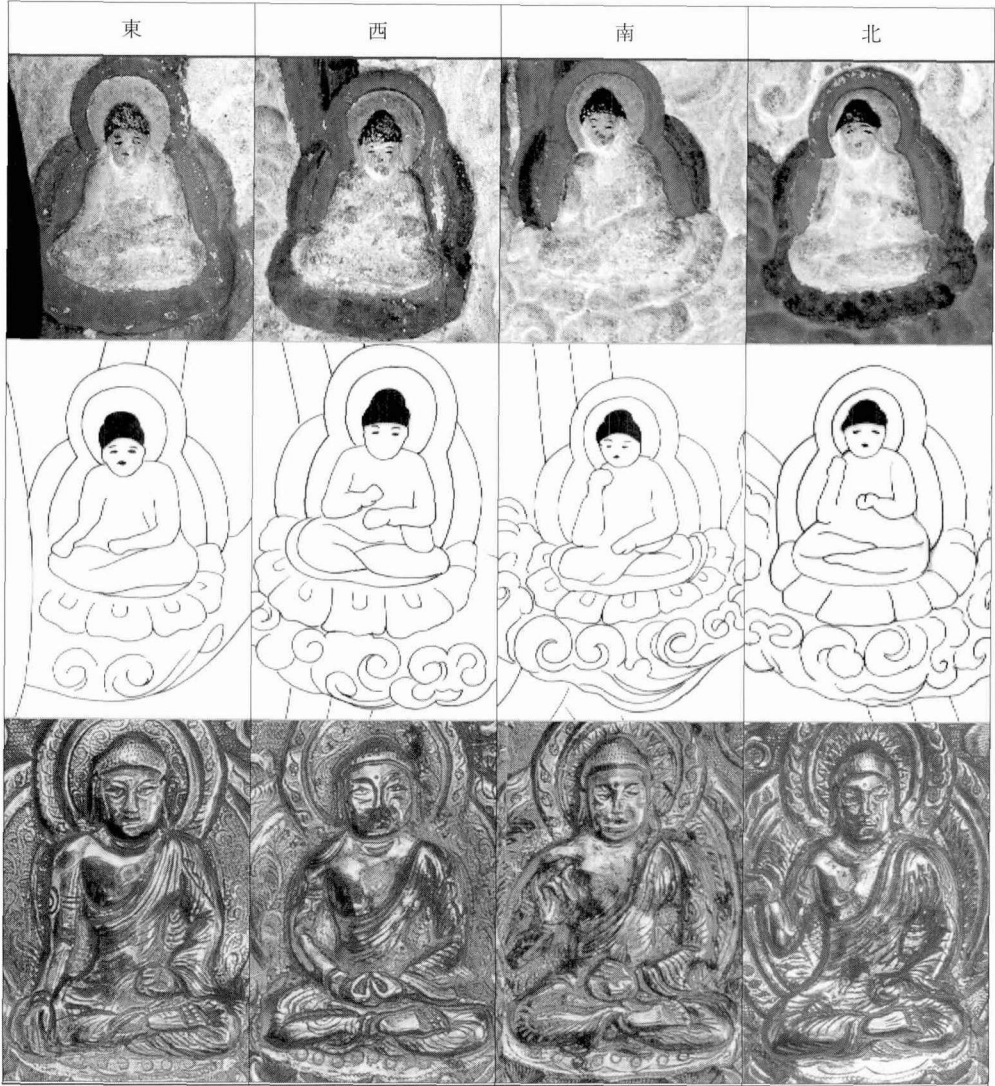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인도의 중기밀교존상 광배에 금강계오불이 배열되는 도상 구도는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광배에 보이는 화불의 표현과 비교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9세기 중반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을 대표하는 동화사 비로암상의 광배 화불은 唐代 法門寺 출토 〈鑿金四十五尊造像錄頂銀函(871)〉<sup>도13</sup>의 금강계오불과 손의 위치나 형태가 거의 일치하여 같은 手印으로 보인다<sup>표2</sup>.<sup>39</sup> 동화사 비로암상 광배의 가장 위에 있는 화불은 한 손을 가슴까지 들고, 다른 한

37 松長惠史, 「光背五佛について」, 『高野山大學密教文化研究所紀要』6號(高野山大學密教文化研究所, 1993. 1), pp.154-160. 변화관음이나 문수보살상의 광배에 배열된 금강계오불의 대부분은 시무외인의 불공성취, 축지인의 아축, 중앙의 대일여래, 여원인의 보생불, 선정인의 아미타불의 4불과 주존으로 중앙에는 지권인이 아닌 전법륜인을 결한 존상이 배치된다. 이는 다른 4불과 함께 배치된 것으로 볼 때 주존 대일여래로 파악할 수 있어 지권인을 결하지 않고 전법륜인을 결한 대일여래상도 조성되었다.

38 宮治昭, 「中世前期の北インド-仏教美術の發達と變貌」, 『世界美術大全集』東洋篇 14 インド(2)(小學館, 1999), p.89.

39 法門寺 사리구의 조사 내용과 유물에 대해서는 陝西省法門寺考古隊, 「扶風法門寺塔唐代地宮發掘簡報」, 『文物』

표 2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상 광배 화불(위)과 <鎏金四十五尊造像蓋頂銀函>의 金剛界五佛(아래)의 도상비교



손은 어깨까지 들고 있다. 이는 施無畏印을 결한 <鎏金四十五尊造像蓋頂銀函>의 北方 불공

(1998年, 第10期), pp.1-28; 同著, 曾根三枝子 譯, 「扶風縣法門寺塔唐代地下石室遺構」, 『佛教藝術』 188호 (1990), pp.43-64; 吳立民·韓金科, 『法門寺地宮唐密曼荼羅之研究』(香港: 中國佛教文化出版有限公司, 1998), pp.134, 238, 254.

성취여래와 같은 수인의 형태이다. 그 아래 화불은 한 손은 다리 위에 두고, 다른 한 손을 어깨까지 들고 있다. 이런 수인은 정통의 與願印과는 다르지만 <鑿金四十五尊造像蓋頂銀函>의 南方 보생여래는 어깨까지 손을 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는 여원인을 결하고 있어서 동화사 비로암상의 화불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sup>40</sup> 동화사 비로암상 광배에서 가장 아래의 화불은 한 손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릎 위에 두고 있어서, 觸地印을 결한 <鑿金四十五尊造像蓋頂銀函>의 東方 아촉여래와 같은 형태이다. 다만 <鑿金四十五尊造像蓋頂銀函>의 西方 아미타여래는 定印을 결하고 있는 데 비해서, 동화사 비로암상 광배에서 세 번째의 화불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엇갈리게 든 형태의 수인을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동화사 비로암상 광배 세 번째 화불의 수인은 襄陽 陳田寺址 三層石塔 초층의 四方佛 중에서 西方 아미타여래의 轉法輪印과 유사한 형태이다.<sup>41</sup> 이와 같이 동화사 비로암상의 광배 좌우로 같은 수인을 결한 4쌍의 화불을 <鑿金四十五尊造像蓋頂銀函>의 금강계오불 도상과 비교해보면, 광배의 화불은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했던 도상으로 변용된 금강계오불의 표현으로 추정된다.<sup>42</sup>



도 14 陳田寺址 삼층석탑의 西方 아미타불, 8세기 후반, 강원 양양 강현면 둔전리

<sup>40</sup> 현재 동화사 비로암상의 광배는 다소 마멸된 상태이므로 화불들의 손 모양 세부까지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지만 방향이나 위치 등 수인의 대체적인 형태는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화불들의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 기왕의 조사와 연구가 참조된다. 문명대 교수는 동화사 비로암상 광배 정상부에 있는 삼존화불의 주존은 지권인을 결하고, 가장 위에서부터 세 번째 화불을 智拳印을 결하고 있다고 보았다. 文明大, 「新羅下代 毘盧舍那佛像彫刻의 研究(一)」, 『美術資料』 21(國立中央博物館, 1977. 2), p.30.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상부의 삼존화불의 주존은 舍掌印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 화불은 두 손을 엇갈리게 들면서 사이가 떨어져 있다. 지권인을 결하는 경우 8세기 중엽의 상들에서는 두 손이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동화사 비로암상이 조성된 9세기 중엽 이후의 상들의 지권인은 대개 두 손이 붙어 있으므로 이 화불이 지권인을 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sup>41</sup> 金理那, 「統一新羅時代 美術의 國際的 性格」, 『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涉』(韓國美術史學會, 2001), pp.23-24; 同著, 『韓國古代佛敎彫刻 比較研究』(文藝出版社, 2003), pp.203-204.

<sup>42</sup> 통일신라시대 금강계오불의 도상이 독자적으로 변용되었던 이유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먼저 동화사 비로암 三層石塔 출토의 <金銅舍利函> 外面의 四方佛像이나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사방불을 고찰하면서 중기밀교의 금강계오불과 전통적인 통일신라의 도상이 결합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통일신라 불교의 신앙체계와 관련



도 15 大安國寺址 출토 보생여래상,  
8세기 중반, 西安 碑林博物館

광배의 용기선상에 금강계오불을 배열하는 도상 특징은 중기밀교의 의례집인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卷3에서 “금강계오불을 각각 月輪 속에 모시고 비로자나불을 향해서 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금강계만다라 작단법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sup>43</sup> 즉 동화사 비로암상의 광배에 표현된 화불은 중기밀교 경전에서 언급한 만다라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주존 비로자나불상에서 四方으로 파생되는 금강계오불을 통일신라 나름으로 변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 2. 臺座

동화사 비로암상 유형의 비로자나불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둥글게 말린 구름문 속에 칠사자를 배열한 원형에 가까운 중대석의 형태는 唐代 8세기 초반경의 長安 大安國寺址 출토의 寶生如來像을 비롯해서 중기밀교계의 백대리석제 보살상의 대좌와 매우 흡사하다<sup>44</sup>. 대안국사의 보생여래상을 볼 때 현존하지 않는 대일여래상은 칠사자로 구성된 원형의 중대석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칠사자의 표현은 중기밀교 경전에 근거하는 금강계 대일여래의 乘物(동물좌)에서 기원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논증된 바 있다.<sup>45</sup>

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徐閔吉, 「新羅 舍利塔信仰의 密敎性」, 『韓國佛敎學』 17(韓國佛敎學會, 1992), pp.49-53. 또한 『三國遺事』 卷3 五萬眞身條에 나타나는 오방불의 구성은 『佛國寺古今創記』에 기록되어 있는 大雄殿(석가), 極樂殿(아미타), 毘盧殿(비로자나), 觀音殿(관음), 地藏殿(지장), 文殊殿(문수)의 가람구조로 드러나는 오방불과도 일치하고 있어서 통일신라의 금강계오불은 통일신라 화엄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앙되었던 존상으로 대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金永材, 「華嚴密敎的 原型으로서의 五臺山 曼荼羅」, 『韓國佛敎學』 25(韓國佛敎學會, 1999), pp.591-623.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사방불을 고찰한 결과 통일신라의 금강계오불 도상은 독자적으로 변용되고 있음을 밝힌 논고도 있다. 李淑姬, 「統一新羅時代 五方佛의 圖像 研究」, 『미술사연구』 16(미술사연구회, 2002), pp.43-44.

<sup>43</sup> 『大日經·金剛頂經』外 한글대장경 133(東國譯經院, 1994), p.439.

<sup>44</sup> 大安國寺址 발견의 중기 밀교계 존상에 대해서는 水野敬三郎, 「西安大安國寺遺址出土의 寶生如來像について」, 『佛敎藝術』 150(毎日新聞社, 1983), pp.152-155; 金申, 「西安安國寺遺址出土의 密敎石像考」, 『佛敎美術論考』(北京: 科學出版社, 2004), pp.104-114.



도 16 大安國寺址 출토  
백대리석제 보살상, 8세기 중반,  
西安 碑林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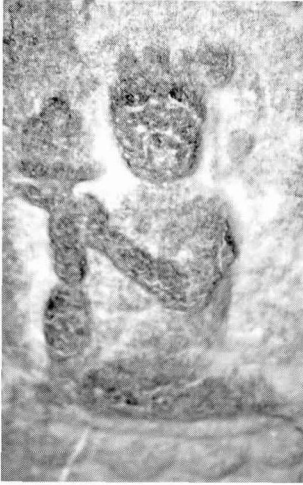
도 17 捧眞身菩薩像의 대좌, 871년,  
中國 陝西省 扶風縣 法門寺 地宮  
출토, 法門寺博物館

이외에도 동화사 비로암상 대좌에는 동그란 꽃술모양의 장식이 더해진 상대석과 동그랗게 말린 구름문양의 중대석이 보인다. 이러한 연화문과 구름문의 형태도 장안지역의 중기 밀교계 보살상의 대좌와 유사하다<sup>16</sup>. 따라서 동화사 비로암상 유형의 대좌 형식과 문양의 표현은 이전 시기의 비로자나불상이나 같은 시기에 조성된 다른 형식의 불상과 석조미술품 등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므로, 唐의 장안지역에서 조성되었던 중기밀교계 존상이 9세기 중반에 통일신라로 유입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9세기 중반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중에서 동화사 비로암상과는 구분되는 축서사상 유형의 대좌는 통일신라에서 전통적으로 유행하던 대좌형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중대석에 배열된 보살상은 인도와 중국에서 조성된 중기밀교계 존상의 광배와 대좌에 나타나는 변화법신보살의 도상과 비교되는데, 특히 法門寺 地宮에서 출토된 捧眞身菩薩像(871)의 대좌에 배열된 금강계 16대보살의 도상과 매우 유사하다<sup>17</sup>.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대좌 중대석에 배열된 보살상의 지물을 비롯한 세부표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동방사지상 2구와 흥천 물걸리사지상의 대좌 중대석 보살상은 비교적 명확한 도상이 보인다. 이러한 예들을 捧眞身菩薩像 대좌 상대석에 배열된 金剛界十

<sup>15</sup> 朴亨國, 앞의 책, p.352.



도 18 洪川 物傑里寺址 비로자나 불상 대좌의 金剛花보살상, 9세기 후반,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도 19 傳 東方寺址 출토 비로자나 불상 대좌의 金剛鉤보살상, 9세기 중반, 경북 영풍시 부석면 부석사 자인당



도 20 傳 東方寺址 출토 비로자나 불상 대좌의 金剛索보살상, 9세기 중반, 경북 영풍시 부석면 부석사 자인당



도 18-1 도 17의 金剛花보살상



도 19-1 도 17의 金剛鉤보살상



도 20-1 도 17의 金剛索보살상

六大菩薩像들과 비교해 보면, 두 손에 세 겹의 꽃 모양의 盤을 든 보살상은 金剛花도18, 길 다란 막대 끝에 꽃술장식이 붙은 鉤를 들고 있는 보살상은 金剛鉤도19, 끝부분이 둥글게 말린 杖을 들고 있는 보살상은 金剛索도20, 병향로를 쥔 보살상은 金剛香도21, 금강저를 든 보살상은 金剛鈴이나 法波羅密도22, 한 손을 가슴 앞으로 들고 한 손은 걸가부좌한 무릎 위에 둔 보살상은 金剛嬉로 尊名이 확인된다도23. 또한 동방사지상과 홍천 물걸리사지상의 대좌 중대석에 배열된 보살상은 앉은 자세와 구불거리면서 말린 寶髮의 형태도 奉眞身菩薩像의 16대보살상과 흡사하다. 동방사지상과 홍천 물걸리상 이외의 비로자나불상 대좌 중대석에 배열된 보살상은 정확한 도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거의 같은 자세로 각기 다른 지물을



도 21 洪川 物傑里寺址 비로자나 불상 대좌의 金剛香보살상, 9세기 후반,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도 22 洪川 物傑里寺址 비로자나 불상 대좌의 金剛鈴보살상, 9세기 후반,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도 23 傳 東方寺址 출토 비로자나 불상 대좌의 金剛嬉보살상, 9세기 중반, 경북 영풍시 부석면 부석사 자인당



도 21-1 도 17의 金剛香보살상



도 22-1 도 17의 金剛鈴보살상



도 23-1 도 17의 金剛嬉보살상

든 보살상이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보살상도 범문사 출토 <鑿金四十五尊造像錄頂銀函>의 금강계오불 주위에 배열된 16대보살상이나 唐代의 傳來品으로 日本 金剛峯寺에 소장된 <板彫金剛界曼荼羅>에 보이는 금강계 대일여래의 변화법신인 佛·菩薩像의 자세 그리고 지물 등에서 유사한 면이 많다<sup>24</sup>.

또한 축서사상 유형의 대좌 중대석과 하대석에 배열되는 香爐와 三花文도 중기밀교 경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양의 이념을 상징하는 것이다. 금강계16대보살은 중기밀교에서 주존인 대일여래와 四佛이 서로에게 공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법신으로 공양의 이념을 의인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쉰을 의미하는 향로와 華를 의미하는 三花文도 중기밀교에서 중



도 24 《板造金剛界曼荼羅》의 세부, 唐 9세기,  
日本 金剛峯寺



도 25 《鑿金如來說法銀寶函》의 금강계 대일여래상, 871년,  
中國 陝西省 扶風縣 法門寺 地宮 출토, 法門寺博物館

요하게 인식하는 공양의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모티프이므로, 중대석에 16대보살 외에 향로나 三花文을 배열함으로써 공양의 의미와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양의 이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향로의 모티프는 인도와 중국의 중기밀교계 존상 대좌에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서림사지상이나 용암사상 유형의 대좌 중대석에 보이는 중앙의 향로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공양보살상을 배열하는 도상 구도는 唐代 범문사출토의 《鑿金如來說法銀寶函》의 금강계 대일여래 앞에 놓인 향로와 공양보살상과 거의 같다<sup>25</sup>. 이상의 비교를 통하여 축서사상 유형의 대좌에 나타나는 불·보살상의 도상과 향로와 삼화문의 표현, 그리고 칠사자의 표현도 중기밀교계 존상의 도상과 관련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46</sup>

<sup>46</sup> 최근에는 동화사 비로암상의 대좌 받침석이 새로 발견되었는데, 정면에는 향로를 두고 그 좌우로 지물을 받쳐 든 보살상이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도상의 배열은 축서사상 유형의 대좌 중대석에 표현된 것과 같아서 이 논문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은 다른 형식의 불상과는 구별되는 특정한 규범에 의

지금까지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불신, 그리고 광배와 대좌에 배열되는 화불과 불·보살상의 표현을 인도와 중국에서 조성된 중기밀교 존상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9세기 중반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은 이전 시기보다 중기밀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광배와 대좌에도 중기밀교에서 채용한 도상 요소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광배와 대좌에 변화법신을 배열하여 만다라적인 구도를 갖추고 있는 중기밀교의 금강계 대일여래 도상이 唐을 통해서 9세기 중반 통일신라로 전래되면서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된다.

## V.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 신앙의 불교사적 배경

지금까지 비교, 고찰한 바와 같이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은 중기밀교와 많은 연관성이 있지만, 『八十華嚴經』에 의거하는 80화엄의 법신불을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중기밀교의 만다라와 같은 구성을 갖고 있는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을 화엄교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은 중기밀교 경전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일여래에서 비롯되는 佛世界の 상징적인 표현과 의미를 채용함으로써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八十華嚴經』의 법신 비로자나불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八十華嚴經』의 「華藏世界品」과 「毘盧遮那品」 등에서 설하고 있는 비로자나불의 佛身觀에 의하면,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은 모든 佛·菩薩의 근원으로 十方세계에 항상 충만한 화엄의 법신불이 갖는 교학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sup>47</sup> 그러므로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에서 불신은 法界를 형상화한 절대경지인 華藏世界的 중심에서 坐定한 모습이며 광배와 대좌에는 비로자나불이 여러 변화법신으로 化現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佛世界の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해 제작되었다고 보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sup>47</sup> 『華嚴經』 1(東國譯經院, 1985), pp.151-219. 『華嚴經』의 교리적인 내용에 담긴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權坦俊, 「華嚴經의 宗教的 理解를 위한 試論」, 『佛教學報』 30(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3), pp.198-203, 221-222. 『華嚴經』에 나타나는 신앙형태와 내용에 대해서는 李杏九, 「華嚴經에 나타난 淨土信仰」, 『佛教學報』 30(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3), pp.192-197. 비로자나불의 淨眼에 비친 세계를 묘사한 華藏世界에 대해서는 權坦俊, 「華藏世界 研究」, 『佛教學報』 38(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2001), pp.312-315, 320-325.

이와 같이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은 통일신라 불교계에 축적되어 있던 80 화엄의 법신불에 대한 조형적인 전통 아래 새롭게 전래된 중기밀교에서 도상을 수용하면서, 그 도상체계를 구성하는 개념이나 방식을 통일신라 나름으로 변용하여 새롭게 再創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같은 불교문화권의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비로자나불상 도상의 완성을 추구해 가는 통일신라 불교조각사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에 큰 영향을 미친 중기밀교가 華嚴宗과 禪宗에 수용되었던 이유를 비로자나불상의 조상기와 관련 명문자료의 내용과 결부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즉 중기밀교의 도상이 통일신라 화엄종과 선종에서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을 통일신라 불교계의 사상 융합과 인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통일신라 불교도들은 이러한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고 來世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佛敎結社를 조직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행했던 것은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의거하여 無垢淨塔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의거하는 願塔의 조성은 밀교적인 의례이지만, 통일신라시대 화엄종과 선종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있었다. 화엄종 사찰인 佛國寺의 석가탑에서는 세계 最古의 목판인쇄물인 『無垢淨光大陀羅尼經』(751)이 발견되었으며, 華嚴寺의 西五層石塔에서는 750년경의 『無垢淨經』과 다라니를 필사한 종이가 발견되었다.<sup>48</sup> 또한 景文王 11年(871)에 改創되는 皇龍寺의 九層木塔에도 99기의 小塔과 사리, 4종의 다라니경 1권 등이 봉안되었고,<sup>49</sup> 海印寺의 妙吉祥塔誌(895)에도 『無垢淨經』이 화엄경전과 함께 봉안되었다.<sup>50</sup> 선종 사찰인 寶林寺에도 憲安王의 來世의 안녕을 기원하며 무구정탑이 조성되었으며,<sup>51</sup> 聖住寺에도 無垢淨塔이 조성되었다.<sup>52</sup> 또한 <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의 발문 내용을 통해 華嚴結社도 밀교의식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sup>53</sup>

<sup>48</sup> 崔聖銀, 「華嚴寺 西五層石塔出土 青銅製 佛像들(법)에 대한 考察」, 『講座美術史』 15(韓國佛敎美術史學會, 2000, 12), p.29의 도5; 郭承勳, 「新羅 皇龍寺 僧侶들의 活動」, 『皇龍寺의 綜合的 考察』(新羅文化際學術發表會論文集 제22집, 2001), p.151.

<sup>49</sup> 鄭炳三, 「皇龍寺 九層木塔 舍利函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卷(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pp.364-375.

<sup>50</sup> 해인사 일주문 앞의 길상탑 안에서는 眞聖王代(887-897) 해인사 부근에서 있었던 전란에서 사망한 僧軍의 닛을 위로하고자 탑을 조성하면서 쓴 탑지가 발견되었다. 한편 같은 목적으로 五臺山寺와 百城山寺에도 길상탑을 세우기 위하여 탑지를 조성하여 해인사 길상탑에 함께 봉안하였는데, 그중 백성산사의 탑지에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외에도 『法華經』, 『維摩經』을 비롯해서 華嚴二佛의 名號와 40神衆名, 선제동자가 만난 55善知識名, 53佛名, 10대제자명과 7處9會39品の 名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八十華嚴經』의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鄭炳三, 「海印寺의 妙吉祥塔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卷(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pp.337-345.

<sup>51</sup> 鄭永鎬, 「寶林寺 石塔 內 發見 舍利具에 대하여」, 『考古美術』 123·124(韓國美術史學會, 1974), pp.26-34.

<sup>52</sup> 黃壽永, 「新羅金立之撰聖住寺事蹟碑片」, 『韓國金石遺文』(一志社, 1976), pp.86-90.

석남사상 조상기에는 불상과 함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봉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皇龍寺 僧侶인 賢炬가 佛事를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華嚴宗刹로 여겨지는 축서사의 삼층석탑 건립에도 밀교적 道場도 개설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구정탑의 건립이나 비로자나불상 조성과 관련되는 조상기를 볼 때 통일신라시대 화엄종과 선종에서는 밀교적인 의례가 통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화엄종에서는 비현실적인 교학체계를 극복하고자 자체적으로 實踐行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불교도들은 화엄의 실천행을 통한 佛國淨土의 실현이나 成佛보다는 밀교적인 의례를 통해 개인의 현실적 기복과 안녕을 이루고자 하였다.<sup>54</sup> 따라서 당시 화엄종에서는 신앙형태를 조직적으로 체계화하고 의례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롭게 전래된 중기밀교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중기밀교의 금강계 대일여래의 도상을 화엄종의 주존불 도상으로 채용하여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선종에서는 화엄을 기반으로 하는 교학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80화엄의 범신불인 비로자나불상을 본존불로 봉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55</sup> 선종에서 비로자나불상을 본존불로 봉안되는 사상적인 인식을 말해주는 자료는 <普照禪師彰聖塔碑(858)>의 내용이다. 그 비문에서 體澄은 “본래 중생과 비로자나불이 하나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卽心是佛이 되는 자각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sup>56</sup> 즉 선종의 실천적

<sup>53</sup> “(중략) 경문을 쓸 때에는 늘 깨끗한 新淨衣와 禪水衣, 臂衣, 冠, 天冠 등으로 장엄한 두 青衣童子가 灌頂針을 받들며, 청의동자에 이어서 4명의 伎樂人들이 모두 기악을 하며, 또 한 사람이 향수를 가는 길에 뿌리며, 또 한 사람은 꽃을 받들어 가는 길에 뿌리며, 또 한法師는 향로를 받들고 (사람들을) 인도하며, 또 한 범사는 범패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며, 여러 필사들은 각기 香花를 받들고 마음을 공경히 하여 길을 걸어 만드는 곳에 이르면 三歸依하고 세 번 頂禮하여 佛·菩薩·華嚴經 등을 공양한 이후에 자리에 올라가 경을 썼다. (중략) 文明大, 『新羅 華嚴經 寫經과 그 變相圖의 研究』, 『韓國學報』 14(一志社, 1979), pp.31-34; 金相鉉, 앞의 논문, pp.69-74.

<sup>54</sup> 李道業, 「法會에 나타난 華嚴信仰研究」, 『論文集』 9(東國大學校 경주캠퍼스, 1990), p.26.

<sup>55</sup> 통일신라시대 禪師들이 통일신라중대의 교학을 비판하고 반성하면서 화엄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상체계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화엄종과 선종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사상 체계에 있어서 서로의 논리를 채용해서 융화하고 포용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불교계의 분위기는 통일신라시대 왕들에 의해서 교종과 선종을 융합시키고자 노력하는 데서도 배경을 찾을 수 있다. 金相鉉, 『新羅下代 華嚴思想과 禪思想』, 『新羅文化』 6(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89), pp.18-24. 또한 통일신라시대 선사들은 화엄교학을 필수적으로 탐독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화엄을 수학하고 강의하기도 하였다. 金福順, 『新羅下代 禪宗과 華嚴宗 관계의 考察』, 『韓國古代佛敎史研究』(民族社, 2002), pp.265-274; 曹庚時, 「新羅 下代 華嚴宗의 構造와 傾向」, 『釜山史學』 13(釜山史學會, 1988. 6), pp.57-62.

<sup>56</sup> “한없이 넓은 노사나나 만물을 감싸고 기르나 어리석은 중생은 노사나의 律을 어긴다. 두 몸이 이미 한몸이거늘 다시 누구를 부처라 하라! 미혹하고 또 미혹함이어! 도는 이에 다함이로다.” 金南九, 『寶林寺 普照禪師塔碑』,

논리로서 강조하고 있는 見性成佛이나 자기의 본성을 자각할 때 범신불이 바로 구현된다는 卽心是佛의 입장이 화엄의 비로자나불로 상징될 수 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sup>57</sup>

한편 경주에서 파견된 畫僧이 비로자나불상을 그렸다는 <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의 발문을 볼 때, 80화엄의 범신불 도상에 대한 이해는 8세기 중반경에 경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9세기에 접어들면서 華嚴十刹을 비롯한 화엄사찰들은 경주 이외의 지역에 대부분 건립되었고,<sup>58</sup> 화엄종과 선종을 신앙하던 왕실과 귀족 그리고 호족세력 등의 願刹이 경주의 외곽지역인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건립되면서 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하고 신앙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VI. 맺음말

본고는 기왕의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비로자나불상의 도상문제를 새로운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그 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광배와 대좌의 형식과 도상 표현에 주목하여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도상 특징과 상징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비로자나불상의 성립과 전개양상을 통일신라시대 불교사적인 배경 속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8세기 중반의 석남사 비로자나불상은 전통적인 불상양식의 토대 위에서 지권인의 수인만을 금강계 대일여래 도상에서 채용하였지만, 9세기 중반의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상과 축서사 비로자나불상은 지권인의 수인 외에도 광배와 대좌에 중기밀교와 연관되는 다양한 佛·菩薩像을 표현하고 있다. 즉 광배에 표현되는 화불은 唐代 法門寺 출토의 鑲金四十五尊造像錄頂銀函과 같은 중기밀교의 금강계오불의 표현이며, 대좌의 佛·菩薩像은 法門寺 출토 奉眞身菩薩像 등의 대좌에 나타나는 중기밀교의 변화범신보살과 같고 香爐나 三華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卷(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pp.47-61; 李智冠, 「長興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권1 新羅篇(伽山文庫, 1994), pp.96-114.

<sup>57</sup> 鄭性本, 「新羅禪宗의 諸問題」, 『新羅禪宗의 研究』(民族社, 1995), p.286.

<sup>58</sup> 당시 화엄종 사찰의 분포 현상에 대해서는 수도인 경주에는 주로 瑜伽系 사찰을 두고 변방지역에는 화엄사찰이 분포하는 것은 왕권의 內部에 유가계 사찰을 둠으로써 왕권의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外部에 화엄종 사찰을 둠으로써 민생을 포용하는 유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이 종파를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경향은 같은 시기의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金在庚, 「新羅 中代 華嚴信仰의 社會的 役割」, 『震檀學報』 73(震檀學會, 1992. 6), pp.11-15.

文 그리고 七獅子 등의 표현도 중기밀교 경전에서 설한 금강계 대일여래와 공양의 이념과 연관되는 것이다. 따라서 9세기 중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은 중기밀교 존상과 마찬가지로 주존이 갖는 교학적인 상징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도상의 개념과 체계를 80화엄의 법신불 도상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상특징은 결국 모든 佛·菩薩의 근원으로 법계의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80화엄의 法身佛이 갖는 교학적인 의미를 보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통일신라 화엄종에서 중기밀교의 도상을 채용하여 80화엄의 법신불로 표현하고 이를 주존불로 봉안하였던 것은, 당시의 불교도들과 유리되는 현학적인 화엄종의 신앙 의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밀교를 수용하였던 불교사적인 배경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화엄을 중요한 교학체계로 수학하였던 선종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수용되어 비로자나불상을 주존불로 봉안하게 되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과 직접 비교되는 唐代에 조성된 80화엄의 법신불상에 관한 자료를 찾아서 보다 폭넓고 치밀한 비교, 고찰을 하지 못하였으며, 중기밀교의 도상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승려들에 대한 행적이나 관련 기록, 그리고 경전이나 도상집의 전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거나 출현하여, 최근에 통일신라 불상 연구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중기밀교 도상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key words) — 비로자나불상(Vairocana Images), 광배(Nimbus), 대좌(Pedestal), 중기밀교(the middle Esoteric Buddhism), 지권인(Vajramudra), 팔십화엄경(the 80 fascicles of Huayanjing), 大日如來(Maha-Vairocana), 금강계 대일여래상(Maha-Vairocana Images in Vajradharma)

이 논문에서는 창안설과 전래설이 대두되면서 쟁점화되었던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도상 문제를 새로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그 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불상의 광배와 대좌에 표현된 도상 표현에 주목하였다. 즉 비로자나불상의 광배와 대좌에 나타나는 佛·菩薩像을 인도와 중국의 중기밀교계 존상들과 비교·고찰하여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에 내포된 도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비로자나불상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사적인 배경 속에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상이 화엄종과 선종의 주존불상으로 조성되었던 도상의 성립배경으로는, 法身 비로자나불이 주존으로 등장하는 『八十華嚴經』이 8세기 초반 통일신라로 전래되어, 80화엄 신앙에 의거하는 새로운 본존불 도상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8세기 중반에는 唐에서 중기밀교가 전래되면서 금강계 대일여래 도상에 대한 인식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도상이 전래되는 것을 계기로, 8세기 중반 통일신라 화엄종에서는 금강계 대일여래의 도상을 80화엄의 주존불 도상으로 채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9세기에는 義林, 不可思議를 비롯한 승려들이 중기밀교를 익히고 귀국하며, 法門寺의 사리공양의식을 實見하였다는 崔致遠의 『法藏和尚傳』의 기록과 금강계 대일여래의 변화법신을 일컫는 36尊을 비로자나불과 함께 조성하라는 내용이 있는 『三國遺事』 卷3의 「五萬眞身」條를 볼 때 중기밀교의 도상이 보다 직접적으로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기밀교 도상의 구체적인 이해는 9세기 중반 이후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도상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8세기 중반에서 9세기 초반에는 통일신라의 전통적인 불상양식의 토대 위에서 지권인의 수인을 비롯한 불신만이 새로운 요소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9세기 중반에서 9세기 후반에는 唐에서 새롭게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圓形에 가까운 형태의 대좌형식을 갖춘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상 유형과 전통적인 팔각연화대좌 형식의 축서사 비로자나불상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 두 가지 형식의 비로자나불상은 지권인의 수인 외에도 광배와 대좌에 중기밀교와 연관되는 다양한 불·보살상을 표현하고 있었다. 즉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광배에 표현되는 화불은 唐代 法門寺 출토 〈鑿金四十五尊造像錄頂銀函〉(871)과 비교되는 중기밀교의 금강계오불의 변용으로 보았으며, 대좌의 불·보살상은 법문사 출토 〈奉眞身菩薩像〉(871)의 대좌에 나타나는 중기밀교의 변화법신보살이

며, 그 외에 香爐나 三華文 그리고 七獅子 등의 표현도 중기밀교 경전에서 설한 大日如來의 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의 비로자나불상은 9세기 중반에 정립되었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 고유의 도상은 전승되고 있지만 각 도상의 세부적인 표현이 왜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대좌와 광배에 중기밀교 도상을 배열하는 것은 인도와 중국의 중기밀교 존상과 같이 광배와 대좌에 대일여래의 변화법신을 배열하여 주존이 갖는 교학적인 상징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이 이러한 중기밀교의 도상 구도를 채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든 불·보살의 근원으로 十方에 항상 충만하다는 80화엄의 法身佛이 갖는 교학적인 의미를 보다 효과적이며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과 관련되는 조상기록을 당시 불교사적인 배경 속에서 규명해 보면, 통일신라시대 화엄종과 선종에서는 당시 불교도들과 유리된 비현실적인 교학체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기밀교적인 의례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통일신라시대 화엄종과 선종에서는 중기밀교의 법신불 도상을 채용하여 주존불로 봉안할 수 있는 신앙체계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중기밀교 도상의 전래과정을 추정할 때 80화엄의 법신불로서의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에 대한 이해는 경주지역에서 가장 먼저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왕실과 중앙귀족의 願刹이 경주 외곽지역에 건립되면서 현재의 경북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고찰을 통하여 같은 시기 중기밀교의 영향으로 菩薩形의 금강계 대일여래상이 유행하였던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통일신라의 전통을 유지하는 한편 중기밀교 도상요소를 채용하여 새로운 80화엄의 법신불 도상으로 재창안하고 있는 통일신라 불교계의 뛰어난 역량과 불상조상사의 한 단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 Abstract

# The Iconography of Vairocana Images in the Unified Silla Period: With a Particular Note on the Aureoles and Pedestals

Seo Jimin\*

This study examines the iconography of Vairocana Images in the Unified Silla period especiall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revealed in the aureoles and pedestals, and thus attempts to explore their symbolic meaning of Vairocana Images.

The *Avatamsaka sutra* in 80 fascicles and Esoteric Buddhism of the middle phase, which adopted the *dharmakāya* Vairocana as the central Buddha, must be considered with the question of when and how they were transmitted to Silla. It is said that the *Avatamsaka sutra* was already known in the early 8th century as seen in the *Hwaeomgyeong munui yogyeol mundap* by Pyowon or the questions and answers of Ojin. Since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when the illustration of the *Avatamsaka sutra* was created, it is considered to have been recognized indirectly about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by introducing the *Avatamsaka sutra* in 80 fascicles. Later in the 9th century Buddhist when monks including Uirim and Bulgasau learned the middle-phase Esoteric Buddhism and returned to Silla and as in the *Biography of Fazang* by Choe Chiwon and the Omanjinsin 五萬眞身 of 『legends and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of

---

\* Ph.D. candidate, Chungbuk University

ancient Korea (*Samgukyusa* 三國遺事)], by introduction regular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it is considered that Iconographic also was understood much more concretely.

This study shows on the developing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Iconographic, dividing Vairocana Images in the period of united Silla into two periods largely. From the middle of 8th century to the early of 9th century, only Mudra法身 of Vajramudra was expressed into new factors on the basis of traditional style of the image of Buddha in the period of united Silla, and from the middle of 9th century to the early of 10th century they were divided broadly into Biroam Vairocana Images type of Donghwa temple with Pedestal Type near the prototype that seems to have been introduced newly from Tang Dynasty and Vairocana Images type of Chookser temple with traditional Eight Angles and Lotus Flowers Pedestal Type. These two types of Vairocana Images has been expressing various images of Buddha and Bodhisattva related to in Nimbus and Pedestal and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in addition to Mudra of Vajramudra. That is to say, Nirmanakaya expressed in Nimbus was considered as expression of the five Buddhas of Vajradharma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compared with <Sarira Reliquary (Yugeumsasibojonjosangnokjeongeunham 鑲金四十五尊造像盞頂銀函)> excavated from Beommun temple in Tang Dynasty <Sarira Reliquary (Yugeumsasibojonjosangnokjeongeunham 鑲金四十五尊造像盞頂銀函)>, and images of Buddha and Bodhisattva in Pedestal was Astamahabodhisattvas Images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appearing in Pedestal of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Bongjinsinbosalsang 捧眞身菩薩像)> excavated from Beommun temple. Besides, the expression of the incense burner, the pattern with three flowers, and the pattern with seven lions has also proved to be related directly to Iconographic of Maha-Vairocana recorded in the sutra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After all, arranging Iconographic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for Nimbus and Pedestal of Vairocana Images in the period of united Silla Nirmanakaya is considered as showing to have been transmitted the characteristic of Iconographic from the purpose to express by condensing the doctrinal teaching symbolism that the nobility of Dharma had by arranging Dharmakaya of Maha-Vairocana for Nimbus and Pedestal,

like the main image of Buddha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in India and China. Furthermore, Iconographic of Vairocana Images in the period of united Silla is to interpret as expressing more effectively doctrinal teaching meaning that Dharmakaya of the 80 fascicles of Huayanjing said, fill always in all directions and places as source of all images of Buddha and Bodhisattva, had by adopting Iconographic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When it comes to consider the fact about the record of ancestors or creation of Mugujeong Stupa 無垢淨塔 related to Vairocana Images in the period of united Silla, Hwaeom school and Zen school in the late period of united Silla accepted the rite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to overcome the unrealistic doctrinal teaching system isolated from the people. In this situation, Hwaeom school and Zen school in the late period of united Silla is considered as being able to accept religious belief system that Iconographic of Dharmakaya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could be adopted and enshrine as the main Buddha.

On the other hand, Vairocana Images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it had been likely to make the first in Gyeongju in presuming the introducing process on Iconographic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as Dharmakaya of the 80 fascicles of Huayanjing, it is considered that, after this, as the Buddhist temple that the private person of a Royal family and the main nobility possessed was built in the outskirts of Gyeongju, it was focused on the area, the present Gyeongsangbuk-do.

Like this, through consideration of Vairocana Images in the period of united Silla, it is considered concretely on the excellent ability and a section of statues history on an image of Buddha of Buddhism in the period of united Silla re-originating as the new Dharmakaya Iconographic of the 80 fascicles of Huayanjing, adopting the Iconographic factor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while preserving tradition of the period of united Silla, unlike China and Japan that Maha-Vairocana Images in Vajradharma in the shape of Bodhisattva was popular under the influence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in the same period.